

에코테크네 디스토피아와 생명 정치의 타자성

- 천선란의 『이끼숲』을 중심으로*

오윤호**

1. 기후 재앙 속 인류의 미래
2. 에코테크네 도시의 공간성과 기술적 적응의 한계
3. 생명 정치의 양상과 신체의 부품화
4. 에코테크네 타자의 존재성과 저항의 양상들
5. 에코테크네 비평의 가능성

국문초록

본고는 천선란의 『이끼숲』에서 기후 재앙에 맞서 만들어진 지하 도시를 에코테크네 도시로 명명하고, 그 도시를 통제하는 생명 정치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 도시의 시민들, 청년들이 에코테크네 도시에 대해 보여주는 기술적 적응과 저항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이끼숲』의 사변 소설적 특징과 21세기 한국 SF에 대한 에코테크네 비평의 조건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끼숲』에 재현된 지상은 기후 재앙으로 훼손된 자연 그 자체이며 인류가 잃어버린 낙원이고, 지하 도시는 기후 재앙 속 인류의 유일한 피난처다. 지하 도시는 기술 자본주의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되는 생명 정치의 공간이다. 이 도시에서는 산아제한으로 선택받은 아이들만 태어나 자라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8096301)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부교수

지하 도시에 살면서 미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VA2X를 사먹기 위해 ‘일’을 한다. 노동을 하다 다친 신체는 미리 만들어놓은 클론의 신체로 바꿔 쓸 수 있고, 사람의 목소리를 사서 아바타의 목소리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지하 도시의 시민들은 노동 파업을 하고, 등장인물인 청년들은 자신들만의 연대와 사랑으로 이 도시의 ‘인공 낙원’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도시의 폭력적인 생명 정치 앞에서 좌절당하고 만다. 소마는 유오의 클론을 업고 디스토피아 지하 도시를 탈출해 이끼 숲에 이르러, 지하 도시의 생명 정치가 내포한 폭력성을 폭로한다.

『이끼숲』은 “기후 재앙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 지상과 지하 도시를 생물학적 적응과 기술적 진화의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있다. 그 안에서 생명 정치의 자본화되고 사물화된 타자로 전락한 인류를 응시하는 비판적 시선에서 21세기 한국 SF의 사변소설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기후 SF, 에코테크네, 천선란, 디스토피아, 진화론, 기술적 적응)

1. 기후 재앙¹⁾ 속 인류의 미래

21세기를 갓 지나 인류는 기후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 온난화라는 오래된 걱정과 두려움은 폭염과 대홍수 등 극단적인 자연 환경의 변화를 겪으며 필연적인 공포로 바뀌었다. 과학적 명분을 주장하며 강행하는

1) 그 동안 기후 위기, 기후 재난 등 인류가 겪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온난화 현상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기후 재앙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지구의 운명이 일시적인 위기나 재난 이후에 정상이나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 전망을 제시하려고 한다.

핵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전지구적 삶이 한낱 인간의 ‘행동’ 하나에 파멸로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 이러한 인류의 행동으로 야기된 기후 재앙의 현상들을 막을 수 있다는 의지와 지구적 윤리를 표방하는 듯한 행동은 무용한 것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매일 매일의 기후 재앙에 대해 걱정하고, 이 급변하는 기후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한국 SF도 기후 위기를 전면화하여 그리고 있으며, 그 미래의 위험성과 인류 멸종의 위기 의식을 재현하고 있다.²⁾ 대표적인 예로 2022년 세종도서 교양 부분을 수상한 『일인용 캡슐』 단편 소설집은 ‘기후 위기 SF 앤솔리지’라는 부제와 함께, “기후 재앙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뒷표지)라고 선언한다. 기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공지능 ‘네오 가이아’의 이야기를 다루는 〈가이아의 선택〉, 화성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후 난민들의 험난한 지구 귀환기를 재현하는 〈일인용 캡슐〉, 바이러스를 막는 첨단 감지기과 그것을 능가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코찌〉, 기후 위기로 빙하기로 접어든 인류가 태양빛을 찾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빛을 찾아서〉는 근미래 지구가 겪어야 할 기후 위기의 현상들 앞에서 인류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기 대응 양상을 재현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들 속에서 주목할 점은 기후 위기에 대항하고, 그 위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첨단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 지구가 기후 재앙에 빠지게 되었는지 설명하며, 〈네오 가이아〉에서는 기후 재앙으로부터 인류 멸종을 멈출 인공지능이, 〈일인용 캡슐〉에서는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과학기술이 적용된다거나 지구 귀환의 유일한 수단인 일인용 우주선이 등장하고, 〈코찌〉에서는 바이러스를 감지

2) SF는 진화 생물학이 등장한 이후 생물종으로서의 인류의 멸종을 끊임없이 상상해 왔다.

하는 첨단 센서 감지기 그리고 <빛을 찾아서>에서는 빙하 속 인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인 핵융합 발전기가 언급된다. 인류 문명의 첨단 기술은 지구의 기후 재앙을 만들어 내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구적 삶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이중성·양가성을 잘 보여준다. 21세기 이후 인간에게 자연 및 도시는 생물학적 적응과 진화의 공간일뿐만 아니라, ‘기술적 적응’과 ‘기술적 진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생태주의 논의를 넘어, 생태와 기술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삶을 사유하도록 만든다.

다양한 기후 재앙을 그리는 한국 SF 가운데에서도 천선란의 『이끼숲』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후 재앙에 대한 기술적 적응과 생명 정치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천선란은 『천개의 파랑』에서 로봇이 일상화된 근미래 사회에서 ‘공감’의 윤리를 통해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재현하고, 『나인』에서는 식물성 외계인의 지구화 과정을 통해 지구 위 타자들의 위치와 그들의 다원적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지구 위에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통해 타자의 윤리와 공존의 정서를 제시하려고 했던 작품 경향은 『랑과 나의 사막』과 『이끼숲』에 이르러 근미래 지구 위 기후 재앙과 그 상황에 직면한 기술문명화된 인간 혹은 비인간의 삶을 초점화하게 된다. 『랑과 나의 사막』은 환경 오염과 전쟁으로 바다와 사막만이 남은 49세기 지구에서 인간인 랑과 로봇인 고고가 친구가 되고, 먼저 죽은 랑을 추억하며 척박한 지구의 사막으로 떠나는 고고의 순례기이다. 지구의 기후 재앙을 뛰어넘고 인간과 로봇의 경계 너머에 위치한 생명의 초월적 존재론을 제시하고 있다. 『천 개의 파랑』으로부터 이어지는 로봇에 대한 낭만적 연민을 바탕으로, 천선란 특유의 ‘비인간 존재의 인간다움’ 찾기 여정이 사막을 가르지르며 펼쳐진다. 비인간의 기억과 사유가 강조되면

서, 이때 기후 재앙은 고난의 장소로 기능한다. 이러한 구도 공간에서 벗어나, 『이끼숲』은 기후 재앙에 쫓겨 지하로 들어가 침단 지하 도시를 구축하고, 그곳에서 태어나 노동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그리고 있다. 『이끼숲』은 세 편의 소설이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인물들이 연민과 사랑, 질투와 분노를 느끼는 과정을 제각각 그리며, 지하 도시의 삶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 욕망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해 보여준다. 『이끼숲』에 재현된 지하 도시는 기술 자본주의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되는 생명 정치의 공간이다. 이 도시에서는 산악제한으로 선택받은 아이들만 태어나 자라며, 『멋진 신세계』의 ‘소마’처럼 지하 도시에 살면서 미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VA2X를 사먹기 위해 ‘일’을 한다. 노동을 하다 다친 신체는 미리 만들어놓은 클론의 신체로 바꿔 쓸 수 있고, 사람의 목소리를 사서 VR 속 아바타의 목소리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등장인물 청년들은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이 에코테크네 도시에서 ‘기술적 적응’을 하며 이 도시의 모순과 부조리를 감각한다. 여기에서 에코테크네 도시(환경)는 기후 위기라는 곧 도래할 위험을 피할 수 있다거나 그것을 극복하면 근대 이전의 자연을 복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운 상태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후 재앙이 고스란히 현현되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응’해야 하는 공간이다. 기술적 자연선택을 통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공간 속에서, 『이끼숲』은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사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본고는 기후 재앙에 맞서 만들어진 지하 도시를 에코테크네 도시로 명명하고, 그 도시를 통제하는 생명 정치의 양상을 살펴봄에, 이 도시의 시민들, 청년들이 에코테크네 도시에 대해 보여주는 기술적 적응과 저항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끼숲』의 사변소설적 특징과, 21세기 한국 SF에 대한 에코테크네 비평의 조건과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2. 에코테크네 도시의 공간성과 기술적 적응의 한계

『이끼숲』은 기후 재앙으로 인해 인류가 지하 세계로 들어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다. 지상은 기후 재앙으로 훼손된 자연 그 자체이며 인류가 잃어버린 낙원이고, 지하 도시는 기후 재앙 속 인류의 유일한 피난처다. 이러한 공간적 이분법은 별을 꿈꾸며, 우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태학적 난민³⁾의 욕망과 지하 땅속을 계속 파내려가야 하는 지하 도시의 현실과 맞물려 비극성을 극대화한다.

『이끼숲』의 비극은 기후 위기에 대해 인류가 보여주는 생물학적 대응의 실패로부터 시작된다. 인류는 자연을 훼손해 왔으며 더 나은 자연, 오염되기 전 자연으로 되돌리기를 원하지만, 인류의 바람은 뜻밖의 생태적 저항에 직면한다. 유오는 인류가 지구 위 오염된 지상을 버리고 지하로 들어가 도시를 건설하게 된 이유를 ‘나무의 복수’ 때문이라고 말한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숲을 전부 벌목해 새 나무를 심었어. 오래된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낮다고 생각했거든. 나무를 심는 거니까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한 거야. 종말 직전에 행성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사십 퍼센트였는데, 삼십팔 퍼센트를 새 나무로 교체했어.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품종으로. 십삼 년 동안.’

3) 생태학적 난민(Ecological refugee)은 기후 난민(Climate migrant) 및 환경 난민(Environmental migrants) 등과 혼용되어 불리워진다. 생태학적 난민은 “환경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을 일컫는 말로, 기후변화나 인간의 영향에 의해 야기된 생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climate refugee, environmental refugee)을 포함한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산림파괴,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굶주림, 지구의 사막화, 가뭄·홍수·해일 등 자연현상과 인위적인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생겨난다.”(『두산백과사전』의 ‘생태적 난민’ 항목.) 본고에서는 생물학적 적응과 진화론적 지식을 사유하는 소설 내용에 비추어 생태학적 난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한다.

〈중략〉

‘그러다 나무 한 그루가 병에 걸렸고, 그 병이 순식간에 산림 전체에 퍼졌어. 나무에 벌레가 들끓고, 썩고, 굼았어. 다 똑같은 품종이라 그 어떤 나무도 피해 갈 수 없었대.’(111)⁴⁾

인류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광합성이 잘 되는 단일 종의 나무를 지구 위 표면의 38% 가까이 바꿨으며 심게 되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인류의 생물학적 대응은 매우 유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나무 종이 병에 걸리면서 한 순간에 전지구의 산림 대부분을 인류는 잃게 된다. 자연의 생리와 생물종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인간중심적인 기술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빚어진 환경 참사로, 과학 지식의 불완전성과 인류 문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유오는 나무가 영혼이 있고 전지구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가이아적 상상력을 덧붙여, “나무는 복수하기 위해 자살한 거야. 인간들을 몰아낸 거지. 이 행성에서 자신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야.”(111-112)라고 말한다. 기후 위기에 대한 기술적 대응 실패와 자연의 신화적 복수로 인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쫓겨나 ‘생태학적 난민’으로 지하 도시로 추방된다.

지상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인류는 “사역 오천만 헥타르 규모의 도시”를 땅 속에 건설하며 새로운 피난처를 개척해 나간다. 도시는 “첨단과학기술이 가져온 삶의 양식의 변화 및 생태 위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집단적 노력이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공간”⁵⁾이다. 『이끼숲』의 지하 도시는 붕괴와 확장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4) 천선란, 『이끼북』, 예스24, Ebook, 2023, 총 177쪽.

5) 박은주 편, 『에코테크네 도시』, 선인, 2022, 5쪽.

백 이십 층에 면적 사억 오천만 헥타르의 지하 도시로도 인류의 영원을 보장할 수 없어서. 지상에서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으로도 건물이 부식된다고 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서 해풍을 맞으며 산 건물은 빨리 썩는단다. 땅 밑도 마찬가지다. 온갖 미생물이 아주 빠르게 건물의 단단한 외벽을 분해한다. 더욱이 지상의 변화에 따라 토질도 변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수를 해줘야 하고, 더 단단한 곳으로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 뺏어나가야 한다. (97)

지상 위의 기후 재앙을 피하긴 했지만, 이 지하 도시는 지반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기도 하는 “예측불허의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생물학적 난민의 불안한 삶을 경험하며 은희는 “우린 산 채로 묻힌거야.”(53), “이런 걸 산송장이라고 한단다.”(54)라고 말하며, 흙 속에 갇혀 소멸해 가는 인류를 슬퍼한다. 이 말을 들은 마르코도 “유전의 기억이 끊길 때까지 이곳은 감옥이었다. 이곳의 인류는 짓지 않은 죄의 벌을 받는 중이었다.”(54)라고 표현하며, 지하 도시의 삶을 지옥처럼 느끼고 있다. 지하 건설 기술은 땅속 지하 세계에 대한 기술적 적응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인류의 삶을 영속시켜주는 대표적인 기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인류는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없고 붕괴와 죽음이 도사린 여전히 생태적 위기의 지하 도시에 던져져 있다. 지구 위의 오염된 환경이나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지하 도시는 인류에게 ‘위험한 환경’ 그 자체이다.

지하 도시 시민의 불안과 우울을 잠재우고 마치 지상 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지하 도시는 디지털 자연을 적극 구축하고 있다.

건전지가 방전돼 알람이 울리지 않았던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음에도 몸이 개운함을 느낀 순간 나를 덮쳤던 서늘함. 약속 장소로 전속력으로 달리던 때 폐부에 가득 들어차던 팽팽한 공기. 스피커를 통해 들리

던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스타카토처럼 끼어든 참새의 울음, 코를 통해 온
몸에 퍼지던 인공적인 풀 냄새.(86)

지상 위의 삶과 완전 단절되어 하늘과 바다의 기억이 가짜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소마는 아침이면 완벽하게 기술공학적으로 재현된 친환경 상태에서 깨어나 ‘인공 자연’ ‘인공 낙원’을 만끽한다. 이 곳의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빛과 바다를 꿈꾼다. 지하 도시의 기술력은 숲과 바람, 바다와 하늘, 우주와 별빛 등 지하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존재하는 것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이러한 가짜 자연은 플라톤의 동굴 비유처럼 ‘실제’를 접할 수 없으면서 벽면에 비춰진 그림자를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인식의 아이러니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에 “낯설고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마르코는 “가짜 감정일 텐데, 하늘을 본 적 없이 하늘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바다를 본 적 없이 헤엄치고 싶다는 것은 기억 이전의 기억, 마르코가 아닌 인류의 기억이었다. 드넓은 대지를 뛰는 꿈은 기억의 유전이었다.”(54)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에른스트 헤켈이 생물의 개체 발생을 설명하며, ‘반복발생설(recapitulation theory)’에서 주장한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라는 이론적 시각과 관련된다.⁶⁾ 개체적 생명의 발생에 대한 진화론적 이해는 기후재앙으로 파괴된 지구 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끼에 대한 생물진화론적인 설명과 더불어 지하 도시를 탈출하기 위한 중요한 동기가 된다.

자연에 대한 가상의 기술적 재현과 그에 대한 낯설은 경험은 지하 도시 시민들이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대안 공간 혹은 안식처로 도피하게

6) 진화 과정 속에서 개체적 생명이 생명 진화의 누적된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생물학계에서는 이론적인 논박을 당했지만, 생물학적 진화를 다루는 SF 속에서는 꾸준히 사용되는 과학 지식이다.

만든다. 톨가는 ‘버스’라고 하는 가상공간을 지하 도시보다 더 현실로 받아들이고, 의조는 배관 통로에서 그나마 안전을 느낀다.

‘버스’라는 가상 현실, 톨가는 이 공간에서 ‘레몬’이라는 아바타로 활동한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의미로서의 버스는, 말 그대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람들이 꾸며놓은 지상을 누빌 수 있는 매력적인 곳”(23)

‘버스’ 속에서 인간들은 아바타로 활동하며, 도시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간적 관계를 맺으며 대안 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하기도 한다. 이 가상 현실 속 아바타가 살아있는 인간의 목소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 가상 현실과 지하 도시의 삶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 위의 삶에서 벗어나 지하 도시에 살면서 다시 가상 현실로 도주한 것이다. 지하 도시의 시민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비시민으로 살아가는 의조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짜 현실도 경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태어났으나 태어난 것이 아니며 존재하나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의조는 지하 도시의 공공 장소에서 배제되어 천장이나 먼지가 쌓여 있는 배관 통로와 같은 은신처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의조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신을 ‘늪’이나 ‘블랙홀’에 빠졌다고 표현하며 지하 도에서 밀려나 고통받는 차별적 신분에 ‘분노’를 느낀다. 가짜 자연과 대비해 놓고 보자면, 톨가의 버스와 의조의 배관 통로야말로 어쩌면 지하 도시 시민들에게는 삶 그 자체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왜곡된 안식처가 아닐 수 없다.

『이끼숲』에서 또다른 대안 공간은 ‘덤’이다. 이곳은 지상과 지하의 경계에 놓여, 어쩌면 식물이 자라는 숲이 조성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지하 도시 시민들이 갖게 하는 공간이다.

돔은 지상과 맞닿은 B1층, 1구역에 있는 커다란 온실이다. 인간들이 땅 밑으로 내려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온실로, 지상에서 쫓겨나 굴을 팔 때 가장 먼 저 옮겨놓은 것이라 들었다. 지하 도시 전력의 절반이 온실에 쓰이는데, 다섯 구역으로 나뉜 온실은 각기 '지중해' '아마존' '알래스카' '보르네오' '콩고'의 숲을 그대로 보존했다고 들었다. 온실도 정신재활원만큼이나 소문이 무성한 곳인데, 정말로 가본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소문의 크기가 더 방대했다. 지상의 숲을 고스란히 옮겨왔는데, 그런 게 가능했으면 왜 인간이 땅으로 들어왔겠어?

빠르게 불어나는 바다를, 모든 게 메말라 갈라지는 대륙을, 숨조차 쉴 수 없는 공기를 먼저 해결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것을 거짓이라 믿는다.(103)

유오는 우주 탐사를 하고 싶어하고, 생물학을 공부하며 이끼만이 지구 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로 생각한다. 그에게는 지하 도시 B1층에 있는 돔에 가는 것이 희망이며, 그곳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연이 조성되어 있다는 소문을 믿는다. 소문이 만들어 놓은 낭만적 공간으로서 돔은 기술이 만들어 놓은 가짜 자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어쩌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야 하는 곳이다. 소마는 만약 인류의 기술이 진짜 숲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하 도시에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 속에서 그 소문의 허위성을 간파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깨달음은 인공 숲에 대한 낭만적 기대를 깨뜨리고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만 부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마는 이 돔을 향해 나아간다.

『이끼숲』에 재현된 에코테크네 지하 도시는 “생태와 기술이 교차하며 서로를 변용시키는 복잡한 양상”⁷⁾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 재앙에 대한 지

하 도시의 기술적 적응은 지하 도시를 ‘인공 낙원’으로 재현하지만, 시민들은 이곳에 적응하려 노력하면서도 고통받고 ‘버스’, ‘배관 통로’, ‘덤’과 같은 피난처, 대안 공간으로 도피하게 된다. 이러한 인공 낙원의 공간적 분절과 재개념화는 에코테크네 지하 도시의 기술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지하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삶이 위기의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3. 생명 정치의 양상과 신체의 부품화

세릴 빈트는 『21세기 사변소설 속 생명 정치의 미래』⁸⁾에서 21세기 생명공학이 생명 자체를 경제적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방식의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를 재현하는 SF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다. 표유진은 세릴 빈트의 초생명성(epivitality)라는 개념을 요약하며 “사변소설 속 생명 정치적 전망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와 생명공학의 상관관계를 내포하고 생명(체) 개념에 대한 재창조를 함축하는지”⁹⁾를 핵심적으로 정리한다. 생명 정치의 개념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끼숲』 속에 재현된 생명 정치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기후 재앙 속 포스트휴먼의 윤리적 가치와 사변 소설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끼숲』은 기후 재앙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한 인류가 생명의 조건

7) 박은주 편, 앞의 책, 9쪽.

8) Sherryl Vint, *Biopolitical Futures in Twenty First Century Speculative Fi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9) 표유진, 「초생명성 시대를 위한 포스트휴먼 윤리」, 『이화어문논집』 60집, 이화언문학회, 2023, 184쪽.

을 정책적으로 재의미화함으로써 유한하고 폐쇄적인 지하 도시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지하 도시의 기술적 적응은 지하 도시를 인류의 피난처로 만들어 주지만, 한편으로는 생태적 난민들이 사는 또 다른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의 기술적 적응은 시민 개개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하 도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한다. 이렇게 기술의 존재 이유와 생명 정치의 양상을 되묻는 과정에서 『이끼숲』의 사변적 특징은 강화된다.

그 첫 번째 정책이 ‘산아제한’이다. 산아제한은 공간이 협소하고 위태로운 지하 도시의 수용 능력을 맞추기 위해 태어나는 아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보통 열다섯 살이 되면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마련된 집으로 갔다. 그 집이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배정되는 집을 말했다. 지하 도시 특성상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 숫자가 정해져 있었다.

인구가 늘어 포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십 년 간격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집을 배정했는데, 이는 부부의 출산 계획을 위원회에 전부 보고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언제쯤 아이를 가질 거라는 계획서에는 자산 규모 역시 낱낱이 적혀 있었다. 이는 자산 규모가 기준을 넘지 못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과 같았다. 그렇게 십 년 동안 태어날 아이의 숫자는 정해졌다. 그 정책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었지만 예정 없이 태어난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도망친 부부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도.(24~25)

앞서 분석한 것처럼, 지하 도시는 땅 속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고스란히 도시의 한계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간이 협소하기에 인구는 통제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태어나는 아이를 선별하는 것이다. 그 선별의 기준은 부모의 자산 규모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문제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자본의 문제를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정책은 개개인의 삶이 펼쳐보이는 다양한 상황을 다 반영할 수 없다. 산아제한의 문제는 예측하지 못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촉발된다. 의주와 의조가 바로 그 경우로, 의주와 의조가 태어났을 때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위바위보’로 한 아이를 선택하려고 한다. 어떤 아이도 포기하지 못하고 한 아이가 숨어 사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 숨어 사는 아이가 된 의조는 부모님의 어리석은 행동에 크게 분노한다. 한 생명의 생사가 갈리는 문제에, 한 존재의 자유로운 삶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철없이 가볍게 처신하는 부모가 미웠다. 우연처럼 선택받아 자유롭게 지하 도시 생활을 즐기는 의주에게도 의조는 화가 나 있다. “내 자유는 보장받지 못했단다. 너는 네 자유를 당연하게 느끼겠지만, 아니야. 누군가가, 아마도 이곳의 통제와 정책이 너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을 뿐이야.”(69) 라고 말하는 의조와 같은 비시민의 삶은 이 도시에서 버려진 호모사케르와 같다.

지하 도시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술적 수단도 동원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 속에 심는 칩이다.

머리에 엄지손톱만한 칩이 있단지?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칩에는 이름과 출생일과 고유 아이디가 들어 있어서 구역과 구역을 나누는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인식된다고 했어. 그게 꼭 있어야 한다고. 그게 없으면 ‘정체불명’ 혹은 ‘미입력자’ ‘불법 거주자’ ‘비시민 침입자’ 따위가 되어 체포된다고. 그 다음은 몰라. 어디로 잡혀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나마나 죽겠지. 지하 도시가 이미 추방된 곳인데 여기서 어디로 또 추방할 수 있겠니?(71)

칩을 심는다는 것은 지하 도시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체불명” 혹은 ‘미입력자’ 불법 거주자 “비시민 침입자”의 신분이 되어 지하 도시에 숨어 살아야 한다. 칩이 없는 의조는 배관 통로라는 뿔뿔, 블랙홀에 빠진 “올타리 밖에 있는 동물”¹⁰⁾로 스스로 비유한다. 생활의 편리함으로 만들어진 칩은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고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이 되었다.

칩이 신체 속에 삽입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활동을 제한한다면, 먹어서 몸에 흡수되는 생체 기술을 통해 지하 도시 전체 시민을 통제하는 “VA2X”라는 약물도 있다.

하루에 한 알 챙겨 먹어야 하는 “VA2X는 지하 도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였다. 약을 중단하면, “환각, 정신 분열, 우울증 따위의 정신 질환과 뼈가 썩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20)

VA2X는 지하 도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먹어야 하며, 약을 먹지 않으면 사회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무력한 몸 상태로 지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도 꼭 먹어야 하는 필수품이다. VA2X는 의학 기술을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멋진 신세계』에 등장하는 소마와 같다. 소마가 시민들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VA2X는 지하 생활을 일상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안정제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경제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마르코의 경우도

10)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대. 별이 붕괴하면서 만들어진다는데, 빨려 들어가면 아무 것도 빠져나올 수 없대, 빛조차도. 블랙홀은 우주의 환풍구일지도 몰라. 뿔뿔이라는 개념도 배웠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들이 다른 곳에서 배출되는데, 그걸 연결하는 통로야. 입구와 출구를 연결하는 거겠지. 그럼 뿔뿔은 배관 통로인 거지. 나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뿔뿔을 기어가. 엉금엉금.(79)

“VA2X를 사 먹을 돈이 없다면 머리카락을 자르듯이 기꺼이 목소리를 팔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자 파업을 주도하는 마르코의 상사 커커스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해고 당한 후 약을 구할 수 없어 정신병원에 끌려 갔다는 소문이 나기도 한다. 가스실 관리자 디에고는 약을 먹지 않아서 압력 위험 표시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유오를 죽게 만들기도 한다. VA2X는 시민의 삶을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종속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생체 기술이다.

생명 과학과 자본의 결합은 사람의 목소리를 사고 판다거나, 지하 공사 노동자의 클론을 만들어 사고에 대비한다는 상황에서도 그 폭력성을 잘 드러낸다. 은희의 목소리 때문에 사랑에 빠진 마르코는 “은희의 웃음소리, 마치 인공 폭포의 물줄기 같은 시원함.”을 좋아하고, 은희가 부르는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나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은희는 자신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아바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팔아버리고 이 지하 도시에서 사라져 버린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바타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목소리가 필요하니까.
목소리는 전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목소리를 돈을 주고 빼는 거지.”(22~23)

목소리는 팔고 살 수 있는 제품이 되어, 인간의 신체 그 고유한 본체로서 존엄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되고 부품화되어 거래되는 상업적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신체의 부품화 경향과 자본주의적 상업화의 경향은 ‘클론’을 설명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으므로 건설 회사와 위원회는 사후 대책에 힘을

썩었다. 클론이 그 대안이였다. 사고시 신체 이식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 이였다.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였다. 다리가 잘려도 붙일 수 있는 다리가 있 다니. 일하다 폐가 굳어도 바꿀 수 있는 폐가 있다니. 손가락이 잘리는 것쯤 은 문제도 아니게 되었지. 하지만 손가락을 도로 붙인다고 해도 손가락이 잘렸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손가락이 잘린다. 손가락을 붙인다. 이 두 사건은 서로 합치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고, 덮을 수 없다는 걸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걸까? 무엇보다 클론이 죽음 앞에서는 무용하다는 걸 모르는 걸까? 클론 제작 동의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 나는 그걸 봤는데, 그 애는 당연히하다는 듯이 서명을 했다. 그 글자는 아주 조그맣게 쓰여 있어서 나에게만 보였던 걸까?

나는 사후 대책을 비웃었다. (99)

지하 도시에서 클론을 만드는 이유는 지하 공사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체 보험의 형식으로 클론을 만들어 놓았다가 훼손된 신체와 클론의 신체를 대체하여 수술하기 위한 것이다. 클론은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의 존엄과 생명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훼손된 신체의 대체재로서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¹¹⁾ 클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클론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신체의 일부로만 경험할 수 있었다.¹²⁾ 소마가 유오의 클론을

11) 세릴 빈트는 앞의 책에서 생명 정치의 표상으로 불멸의 그릇(the immortal vessel), 살아 있는 도구(the living tool), 생명 기계(the vital machine), 예비 부품(the spare part)을 제안하는데, 『이끼숲』의 클론은 예비 부품에 해당한다.

12) 사실상 클론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다.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그 애는 종종 섬뜩한 말을 하고는 했다. 조각조각 나뉜 몸통, 머리, 팔, 다리, 심장, 폐 따위를 자판기에서 곤충영양바를 구매하듯이 골라서 가지고 오는 식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 애는 내게 끔찍한 상상을 잔뜩 심어주고 정작 자신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 상관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매 순간 신체를 절단하거나 장기를 적출해 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묻는데 나는 순간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입을 다물었던 기억이 난다.(133~134)

구하기 위해 클론 저장소에 갔을 때, 클론들은 “원통 안에 잠들어 있는 수백 명의 사람”처럼 수조 안에서 잠수를 하고 있었다. 유오의 손가락에 난 점까지 똑같은 유오의 클론을 훑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소마와 그의 친구들이 클론을 단순한 부품이 아닌 유오의 또다른 분신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지하 도시의 정책이나 모순을 바꿀 수는 없다. 은희는 이러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인간 복제는 인간의 한계 같아.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살릴 수 있다면 아무도 인간 복제 따위는 하지 않으려 할걸. 인간은 영생에 실패했고, 뇌 정복에 실패했어. 전부 다 실패했어. 고작 똑같은 인간 만들고 땅이나 파고 있대니. 최악의 진화 아니니? 이런 세상인 줄 알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건데. 너는?”(44)

어머니의 치매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은희는 정책 당국의 인간 복제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지하 도시에 살아남아 인간 복제를 하면서도 그것을 보다 유의미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훼손된 신체를 대체하는 부품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인간 복제를 진화의 한 양상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생명의학 기술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남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 도시의 위원장은 생각이 다르다. 소마가 찾아 올라가 만난, 온실 속에서 대부분 죽어버린 식물을 기르며 살아가는 돔의 주인인 위원장은 자신들의 정책이 모든 시민의 평등과 지하 도시의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다 똑같아. 다 균일하게 태어난다고. 누가 더 불행하고 불리한 것 없이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더 억울할 수 있겠어? 나는 그런

엄살이 정말 싫어. 슬프다고 핑계 대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딱 질색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정신재활이 필요하지.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지.”(143)

위원장의 위선은 지하 도시가 시행하는 생명 정치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그들이 설정한 지하 도시의 평등은 개개 삶의 가치로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도시 유지가 목적인 것이다. 위원장이 말하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은 지하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끼숲』에서 생명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산아제한과 VA2X, 칩은 인간 생명에 대한 타자화하고 잉여물, 부품으로 전락시킨다. 또한 생명 정치의 공간적 배치에 따라, 사회부적응자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감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정신재활병원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고 시민의 정신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지하 도시의 폭력성을 상징한다. 그런 점에서 에코테크네 지하 도시야말로 기술문명과 생태문명의 위태로운 상호관계 속에서 생명 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디스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다.

4. 에코테크네 타자의 존재성과 저항의 양상들

그렇다면 이러한 지하 도시에서 시민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끼숲』에 나오는 청년들은 어느 누구보다 지하 도시의 정책과 규율에 맞추어 자신에게 걸맞는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에코테크네 도시에 대한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적응이며, 지하에 살며 적응해야 하는 한 생명으로서

가져야 할 일종의 연대 의식이다.

마르코는 경비원을 하면서 클론이 만들어지는 “가장 잔혹한 세계의 진 입문”을 지킨다. 유오는 식물에 관한 책을 좋아하며, 지상 탐사를 꿈꾸지만 지하 작업 노동자로 일하고, 소마는 통신국 8팀에서 도청과 도시 감시 일을 한다. 치유키는 훼손된 신체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클론을 죽이는 일을 한다. 모두가 지하 도시가 만들어 놓은 생활 환경에 맞게 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유희적 삶을 소극적으로 추구 하는데, 바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스페이스 스카이를 좋아하거나, 식물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거나, 버스의 아바타를 육성하며 친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지하 도시의 생명 정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하 도시의 시민들을 타자화할 뿐이다. 지하 도시는 시민들을 부품화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배관 통로와 같은 소외된 공간으로 몰아넣으며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도시 유지 그 자체에 골몰한다. 이러한 지하 도시의 정책에 맞서 시민들은 적극적인 저항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노동 운동이다. 청년의 노동과 자본주의적 가난에 대한 문제의식은 천선란 작가가 『천 개의 파랑』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주제다. 마르코가 신입 사원으로 취직한 회사에서는 직원 삼십 명이 파업하며 임금을 올려달라 협상 중이었다.

커커스와 노조가 요구했던 것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과 회사의 도급 계약서를 밝히고, 그 액수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전체를 올려달라 했던 노조의 바람은 회사가 원청과의 도급 계약서를 밝힐 의무가 없다는 말로 일축되었고, 노동자와의 계약을 어기지 않았으므로 피해를 주는 파업을 계속할 시 모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말로 돌아왔다.

닫힌 세계라서 이길 수 없었다는 커커스의 말을 달리하자면, 이곳이 지

상이었다면 가능했을 거란 말이었을까. 이곳에 하늘이 없고, 건너갈 바다가 없고, 숨을 동굴이 없어서 백기를 들어야 했다는 말이었을까. 저 위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을 하면 되는 세상이었나.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옮겨가고, 위험하다 싶으면 멈추고, 잘못됐다 싶으면 돌아갈 수 있는. 역시나 살아보지 못해 알 수 없었다.(56)

마르코의 직장 상사인 커커스가 바랐던 것은 “노동의 대가”였지만 회사는 커커스를 자르고 싶어한다. 사태의 초기에는 무관심했던 마르코는 노동 운동을 하며 좌절하고 마는 커커스가 회사 측에 “뺐혔다”고 느낀다. 마르코는 파업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아지고 잠잘 시간도 없어졌지만, 회사는 임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다가 결국에는 회사 폐쇄까지 하면서 임금을 떼어먹는다. 노동 파업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맞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지만, ‘닫힌 세계’인 지하 도시에서는 이 또한 불가능한 시도에 가깝다.

노동 운동은 실패했지만, 『이끼숲』의 청년들은 서로의 존재에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끼며, 반사회적 행동을 도모하는 연대의식을 보여준다. 『이끼숲』은 마르코, 의조, 소마가 각각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단편소설 3편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소설이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인물들이 중심이다 보니, 사랑에 대한 감정은 타자를 발견하고 자아 각성을 하고, 사회 부조리를 깨닫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이 세 사람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고 만다. 마르코가 사랑한 은희는 가난 때문에 목소리를 팔고 사라져 버렸으며, 의조는 치유키를 사랑하지만 비시민 침입자의 신분으로 블랙홀(배관 통로)을 떠돌 수밖에 없고, 소마가 사랑하는 유오는 공사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들 사랑의 실패는 이 지하 도시의 냉혹한 현실이 원인인데, 사랑마저도 이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들의 연대는 모종의 약속이 되고 낭만적 모험으로 나아간다. 세 번째 단편소설 『이끼숲』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소마가 유오의 클론을 업고 지상으로 탈출하는 행위는 지하 도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 행동이다. 이 행동은 클론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고, 지하 도시가 은폐해 온 지상의 실체를 발견하는 일이며, 지하 도시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추어낸다.

식물을 좋아했던 유오는 일만 년 넘게 산 바오바브 나무의 이야기를 좋아했고, 이끼가 일억 년 전에 생겨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은 이야기를 소마에게 전하며 지상으로의 여행을 꿈꿨다. 이끼가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던 유오에게 “이끼의 생존은 신비로운 강인함이라기보다 생태의 흐름에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치사하게 빌붙어 사는 느낌”(103)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강한 생명력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러한 유오의 언급은 단순히 그 생존력만이 아니라, 기후 재앙이 덮친 지구에서 유일하게 생명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이끼라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오는 인간과 식물, 이끼의 서로 다른 위상에 대해서 생각하며 진화의 본질과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구적 가치를 정리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삶은 예전 문명으로부터 떨어진 꽃처럼 느껴진다.”(91)

‘진화에서 인간이 더 강했던 거야. 강해서 많아진 것뿐이고.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지니 자리를 더 차지하게 된 거지. 무엇이든 똑같아. 그게 이기적으로 보여? 생존을 위해 이기적인 게 인간뿐일까? 살기 위해 다른 식물의 몸을 휘감고 올라타서 광합성하기에 우위를 차지해 다른 식물을 천천히 말라죽이는 덩굴식물도 있대. 다른 식물을 죽이며 자란다고 해서 교살 식물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 식물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라. 살기 위한 경쟁은

언제나 잔인할 수밖에 없어.’(92)

생물진화론은 이 소설의 세계상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과학 지식이
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믿으면서도 인간이 보여준 잔인한 행동에 대해
서는 비판적 거리를 두고, 이끼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한 염원을
갖게 된다.¹³⁾ 유오의 진화론적인 사유는 기술로 재현된 자연 환경을 넘어
선 원초적 자연에 대한 소망을 통해, 가상 이미지로 재현된 자연, 열악하고
가짜인 현실 세계(지하 도시의 삶)에 균열을 낸다.

유오의 클론을 훔친 소마는 유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지하 도시를
벗어나 지상 위 숲을 찾아 떠나게 된다.

아직 나는 지구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없는 곳에서 난파되어
사는 너를 생각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건 힘들다. 너에게 숲을 보여준다면
조금 가능할 것도 같아서, 방금까지 나에게 말 걸던 것이 세상에 흩어진
무수히 많은 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업힌 이것이 더욱 너처럼 느
껴져서, 낡은 쇠문을 밀어 연다. 힘없이 열린 문이 덜컥 멈추고 우리 앞에는
저 멀리 거대한 벽과 평평한 땅을 전부 뒤덮은 이끼가 나타난다. 땅에서 안
개인가, 수증기인가 아무튼 그런 뿌연 연기가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 끊임
없이. 그때 등에 업힌 그것의 손가락이 움찔거린다. 꼭 가라는 것 같다.

저곳으로. (148)

13) 소마, 나는 우리가 이끼였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바위틈에도 살고, 보도블록 사이에도 살고 멸망한 도시에서도 살 수 있으면 좋잖아.
고귀할 필요 없이, 특별하고 우아할 필요 없이 겨우 제 몸만한 영역만을 쓰면서 지상
어디에서든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 햇빛을 많이 보기 위해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물을
마시지 못해 메마를 일도 없게. 그렇게 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시시하겠지만
조금 시시해도 괜찮지 않을까?(152)

지상에서 소마가 본 것은 이끼로 뒤덮인 대지였으며, 별은 진짜로 있었고, 지구는 빛나는 것 투성이었다. 숲에 도착하여 이끼에 감싸인 거대한 나무에 기대어 소마는 “나는 그 애를 놓지 않는다. 절대로”(154)라고 말하고 죽음에 이른다. 이끼숲은 지독한 기후 재앙에도 살아남아, 소마와 유오의 클론이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며, 최종적 진화 혹은 생물학적 적응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다. 사실 인간이 이끼가 된다는 것은 퇴화에 가깝지만 기후 재앙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명체라는 점에서, 환경에 적응한 적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끼숲』은 지속적으로 인간 기술의 불완전성을 강조했다. 지하 도시의 태생적 한계, 클론 기술의 윤리적 문제, VA2X의 금단 현상, 가짜 자연 낙원의 이미지 등 이 기술적 모순을 뚫고 생명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최적화된 이끼의 생명력이다. 유오가 원했던 것은 이끼처럼 되어 가는 삶이다. 『이끼숲』이 사변소설인 이유도 기후 재앙 후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낡은 생물진화론적 시각을 예각화하면서 ‘이끼’의 생명력에 주목하여, 기술문명과 자본화된 생명 정치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에코테크네 비평의 가능성

이상에서 『이끼숲』에 나타난 에코테크네 디스토피아에 대한 재현과 생명 정치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끼숲』이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기후 재앙의 갈등을 토래 집단의 연대 의식과 사랑을 통해 극복하고 낭만적 도피로 결말을 맺는다는 점에서 천선란의 기존 작품들 속에서 두드

려졌던 아동청소년문학의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끼숲』은 생태학적 난민이 된 인류가 스스로 디스토피아를 건설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를 전지구적인 진화의 시각에서 펼쳐 보인다는 점에서 사변소설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기후 재앙은 미래의 인류가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기후 재앙에 대한 인식, 감각, 문제의식, 해결책 모색을 허구적으로 재현하는 SF는 ‘사실주의적 시각’에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끼숲』은 기후 위기 서사를 구체화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진화론적인 적응을 문제 삼는다. 생물진화론적인 시각을 통해 기후 재앙에 처한 인류의 삶을 상대화하고, 지구 위의 생명에 대한 생물학적 사유의 유효성을 잘 다루고 있다. 인간 또한 지구의 시각에서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명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종의 절대성을 부정하면서도 자연의 근원적 생명과 연결짓고자 노력한다.

또한 『이끼숲』은 기후 재앙이 디스토피아 그 자체가 아니라, 기후 재앙 이후의 인류 문명이 생명을 자본화하고 사물화하는 생명 정치의 정책을 펼치면서 그 속에서 시민들이 비극적 삶과 우울한 일상을 살아가며 디스토피아가 된다는 점도 잘 보여준다. 지하 도시의 기술적 적응은 가짜 자연 혹은 인공 낙원을 만들어내며 타자화된 시민들의 비극성을 극대화한다.

『이끼숲』은 에코테크네 비평의 담론을 전략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에코테크네 비평은 원래의 생태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기후 재앙 자체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인간 종이 살아남아야 한다”가 아니라, 기후 재앙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때 그 대처의 결과가

인간중심적 가치로 수렴되는 것을 경계하며, 기술적 적응이 생물학적 적응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에코테크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이끼숲』은 에코테크네 환경을 지상 위, 돛, 지하 도시를 통해 잘 펼쳐 보여준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시민들이 적응하며 소멸해 가는 과정을 재현하며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에코테크네 디스토피아로 그려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한국 SF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천선란, 『이끼북』, 예스24, Ebook, 2023, 총 177쪽.
천선란, 『랑과 나의 사막』, 현대문학, 2022.

2. 논문과 단행본

- 김윤정, 「한국 여성 SF 문학에 나타난 재야생화와 생태주의」, 『우리문학연구』 79집, 우리문학회, 2023, 203-234쪽.
박은주, 『에코테크네 도시』, 선인, 2022.
양윤의·차미령, 「천선란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의 가능성」, 『현대소설 연구』 8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233-263쪽.
이지연, 「‘위기’에 대한 사유와 SF의 대안적 상상력」, 『이화어문논집』 60집, 이화어문학회, 2023, 155-180쪽.
임지연, 「천선란의 SF에 나타난 ‘객관적 현상학’과 생태적 사유」, 『비평문학』 제88호, 한국비평문학회, 2023, 113-137쪽.
진선영, 「기술철학적 관점에서 본 SF 성장소설과 인간-비인간의 양상불」, 『현대소설 연구』 8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541-567쪽.
진설아, 「경계를 해체하는 한국 SF」, 『한국문예창작』 제21권 3호 통권56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75-95쪽.
최애순·손나경, 「SF가 그리는 미래사회로의 초대」, 『한국어문교육』 43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3, 45-82쪽.
표유진, 「초생명성 시대를 위한 포스트휴먼 윤리」, 『이화어문논집』 60집, 이화어문학회, 2023, 181-207쪽.
Sherryl Vint, *Biopolitical Futures in Twenty First Century Speculative Fi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Abstract

Ecotechnne Dystopia and the Otherness of Biopolitics Focusing on Chun Sun-ran's *Mossy Forest*

Oh Younho(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named the underground city created in response to a climate disaster in Chun Sun-ran's *The Mossy Forest* as an ecotechnne city, examines the bio-politics controlling it, and tries to find the meaning of the technological adaptation and resistance that the city's citizens, especially the youth. In the process, this paper examines the speculative fiction features of *The Mossy Forest* and the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of ecotechnological criticism of Korean science fiction in the 21st century.

The land recreated in *The Mossy Forest* is a climate-damaged nature, a paradise lost to humanity, and the underground city is humanity's only refuge in the midst of the climate catastrophe. The underground city is a biopolitical space planned and controlled by technological capitalism. In this city, only children selected for birth control are born and raised, and they live in the underground city and 'work' to buy VA2X, which makes them not crazy. Here, people who injure themselves in labor can be replaced with the body of a pre-made clone, and people can buy a human voice and make it the voice of their avatar.

In this environment, the citizens of this underground city go on a labor strike, and six young people try to adapt to the city's "artificial paradise" through their own solidarity and love. But their love is thwarted by the city's violent biopolitics. Soma escapes the dystopian underground city with Yuo's clone and reaches the mossy forest, exposing the violence implicit in the bio-politics of the underground city.

Starting from the problem of "how to survive after the climate catastrophe?", *The Mossy Forest* reconceptualizes the above-ground and

underground city as spaces of biological adaptation and technological evolution. From a critical gaze on humanity, which has been turned into a capitalized and objectified other by the politics of life, this paper can discover the speculative fiction features of 21st century Korean science fiction.

(Keywords: Climate Science Fiction, Eco-Techne, Chun Sun-ran, Dystopia, Evolutionary Theory, Technological Adaptation)

논문투고일 : 2023년 9월 20일

논문심사일 : 2023년 10월 7일

수정완료일 :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0월 20일